



지식농업을 위한 농업 · 농촌정보화 추진

**‘농촌지역 발전 ·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이 농정 목표
‘지식 · 기술 · 정보’가 승패 좌우, 농업 · 농촌도 변해야**

■ 김 현 수 농림부 정보책임담당관



바야흐로 현대사회는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인류는 먼 옛날 농업혁명을 통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이후, 지난 두세기에 걸쳐 유럽을 중심으로 연기 가득한 공장의 굴뚝과 대량생산 대량소비로 대표되는 산업혁명을 통해 생활해 왔다. 21세기 지금 인류는 ‘지식 · 정보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하여 보다 편안하고 지적인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있다.

지식정보사회는 토지, 자본, 노동 등 산업사회의 기반이 되었던 물적 요소에 비해 지식, 정보, 문화 등 무형의 소프트한 요소들이 훨씬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회이다. 즉 지식, 정보의 역량이 고부가가치의 유일한 요소이며, 부와 성공을 가져오는 열쇠라는 것이다.

지식정보화 사회에서의 농업인의 자세

우리 농업은 그 동안 산업사회 하에서 토지·자본·노동 등 투입요소의 불리성 등 구조적 한계로 인해 어엿한 산업으로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불리한 여건에서도 식량 등 우리 먹거리 해결을 위해 땀을 흘렸으며 나름대로 국가의 근간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성실과 노력의 땀방울만으로 경쟁에서 앞서가기 어렵다.

21세기는 지식·기술·정보를 누가 더 빨리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결정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서 농업과 농촌도 변해야 한다. 즉 우리 농업에 첨단기술과 지식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자상거래 등으로 농산물의 수급과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새로운 농업과 농촌으로 거듭나야 한다. 또한 농업인 스스로 지식정보화 사회에 적응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활용능력을 배양해 나가야 한다. 그럴 경우 우리 농업·농촌 분야가 도시보다 앞설 수 있는 역전의 장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농업·농촌의 정보화 추진

농업·농촌분야의 경우 최근 컴퓨터 보급이나 인터넷 이용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농업인의 정보화 마인드 부족, 통신인프라 미흡 등으로 크게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다. 또 일선 생산자단체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신용업무에 치중하고 있고 인터넷통신을 이용한 유통 등 경제사업 참여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초고속통신망(ADSL, ISDN 등) 구축도 서울 등 대도시엔 편중되어 있고 농촌지역의 보급은 부진한 실정이다.

농림부에서는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과 농산물 유통을 개선하는 한편, 농촌지역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21세기 농정의 주요 목표로 하고 있다. 농촌에서도 인터넷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정보화기반을 확충하고, 농업인이 정보통신을 실제 농업경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능력을 배양시키며, 실제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콘텐츠(contents)를 확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업·농촌의 정보통신환경 개선

국가전체 초고속정보통신망을 2010년까지 구축 완료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나, 실제 가입자망 구축은 민간기업이(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등) 경제성 위주로 추진하고 있어 수요의 집중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의 경우 ADSL, ISDN 등 초고속통신망의 보급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농촌지역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이 조기에 확충되어 도·농간에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금년말까지 전국 196개 읍지역까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면단위로 확대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농업 PC통신망인 농림수산정보망(AFFIS)의 접속을 빠르고 원활하도록 개선하고, AFFIS회원으로 가입하면 기존의 PC통신뿐만 아니라 무료로 인터넷 서비스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제한없이 농업전문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위성방송 실시방안을 강구중에 있다.

농업인의 교육 강화

농업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사업은 농업인의 정보활용 능력을 높이고 정보화의 필요성을 몸소 느끼게 하는 것으로서, 2002년까지 15만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를 수립, 추진중에 있다.

집합교육으로는 시·군의 전산교육장이나 지역학교의 시설을 이용하여 교육하는 시군 단위의 기초교육과정과 농림수산정보센터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으로 분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농사일로 바쁜 농업인 및 지역 여건상 교육기회가 없는 농촌 지역 주민을 위해 현장 위주의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있고, 농업인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중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전화만 하면 지역농과 대학생이 직접 방문하여 해결해 주는 '농업정보119서비스'를 전국 12개 농과대학에서 실시하여, 농업인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앞으로도 농업정보119서비스사업은 정보화교육뿐만 아니라 농업용 S/W보급 및 사후관리 등과 연계하여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금년 4월부터는 특장차(버스)를 이용하여 농촌마을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전자상거래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업인이 농산물출하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체계적



밀레니엄 論壇



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99년에 농산물출하지원정보시스템(홈페이지 주소 : www.chulha.affis.net)을 개발하여 금년부터 다양한 유통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가격등락이 심한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5개 중요 채소류를 대상으로 농산물 출하시 활용하면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는 「농산물 출하지원시스템」을 개발, 금년 1월 28일부터 인터넷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품목별로 현장의 농업인, 상인, 회원농협·농업기술센터 전문가, 도매시장의 수집상, 저장업체, 중도매인, 경매사들과 학계·연구계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농업전문지의 기자 등 42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서 실명으로 현재의 시장상황과 앞으로의 가격전망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산물출하지원시스템의 이용이 확대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산지 재배농가들에게 현지 이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정보화교육(2000년 1만 8천명)시에도 동 시스템의 교육을 포함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이 인터넷상에서 농산물 홍보와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농업인 홈페이지의 개설을 지원하고 있다. '99년에 우수농업인 106명에 대하여 홈페이지 개설을 지원하였다. 개설된 개별 106농가 홈페이지를 품목별, 지역별로 모아놓은 「농업인 홈페이지모음(www.acim.or.kr/farmer)」을 별도로 구축

함으로써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금년에는 200명의 농업인에게 홈페이지를 개설할 계획이다.

농산물 전자상거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하여 통합 쇼핑몰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농산물 통합쇼핑몰(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www.acim.or.kr)은 인터넷상에 존재하는 국내의 주요 24개 농산물쇼핑몰들을 연계하여 5,728개 농수축산물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농산물 사이버마켓의 관문 역할(Portal Site)을 수행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소비자가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할 때 어느 쇼핑몰을 찾아가서, 얼마에 사야 적절한 지를 알 수 있도록 각 쇼핑몰의 상품 가격과 품질 등을 비교·검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금년도에는 통합쇼핑몰의 장바구니 기능을 도입하여 일괄상품주문 및 대금결제 기능을 보강하여 소비자가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One-Stop Shopping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소비자인 도시주부들에 대하여는 농산물 사이버마켓 이용을 생활화해 나가도록 도시주부들을 대학에 위탁하여 사이버 쇼핑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농업을 재도약시키는 지식경영 · 지식농업 정착

새천년 우리 농업을 이끌어갈 사람들은 지식의 생성과 활용을 통해 농업생산 및 유통 등을 끊임없이 개발·혁신하여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지식농업인이다. 따라서 우리 농업분야도 지식농업으로 탈바꿈해 나가기 위해 지난해부터 신지식농업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오고 있다.

신지식농업인 선정은 농업관련기관·단체 및 농림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받고 현지 실사를 거쳐 창의성, 실천성, 부가가치 창출성을 평가하여 “신지식농업인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있다. '99년중 총 78명의 신지식농업인을 선정하였고 이들의 사례를 다른 농업인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정보화교육, 신지식농업인 사례 책자발간, 비디오테이프 및 CD 제작, 방송 등을 통해 전파하여 전농업인의 신지식농업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선정된 신지식농업인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지식 농업인의 Know-How를 기업화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고 10억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또한 농업인 및 농업 관련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을 지식 Pool에 넣어 공동 활용하고, 지식을 재창출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지식관리시스템에는 농업 생산기술 뿐 아니라 농업경영, 유통, 가공, 농업정책 등의 자료가 포함되며 특히 신지식농업인의 성공사례, 많은 시행착오와 연구를 통해 얻은 농업과 관련된 Know-How, 전자 상거래와 관련된 지식 등을 제공한다. 그리고 우리 농산물 시장이 개방될 경우 외국 농산물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농업정책이나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농산물에 관한 외국의 정책, 정보, 질병정보 등을 취합, 제공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정부에서 구축하고 운영하지만 농업인이 주로 참여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점을 감안, 농림지식관리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어서 농업인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토록 할 예정이다. **중앙정보**